



◀ 과학기술인의 총본산인 과총이  
우리 사회에 학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형섭회장.

특별대담

## 신임 과총회장 崔亨燮 박사

“과학기술의 진흥없이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학문하는 사람의 총본산인 과총은  
우리나라 전체가 「한국연구개발주식회사」가 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과대 교수 / 본지 편집위원장)

제12대 과총회장으로 취임한 최형섭박사는 본지와와의 특별대담에서  
앞으로의 설계와 실천방안을 소상하게 제시했다.

# 「한국연구개발주식회사」 탄생의 추진체로서 새 역할을 ...

■ 반갑습니다. KIST창립 초대 소장으로 신화를 창조하셨고 최장수 과기처장관, 학술원 회원, 포항제철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상임고문, 러시아아카데미 정회원 등 수많은 직함에 어울리게 요즘도 강연, 집필 등으로 대단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줄로 압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앞으로 기대가 매우 큼니다. 먼저 과총에 대해 평소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나라 전

체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한국연구개발주식회사」가 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학문하는 풍토조성에 앞장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협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학문하는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그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학

문하는 분위기가 올바르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회 혹은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문하는 사람들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총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학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추진력있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달리기

전에 선배들의 경험과 경륜을 살피 자  
 칫 잘못하여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엄  
 청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스스로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총은 올해로 창립한지 30주년  
 이 됩니다. 이제 성숙기로 들어선 과총  
 이 과거의 축적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  
 을 해야 할 전환점에서 있다는 것을 강  
 조하고 싶습니다.

■ 이제 창립 30주년이 되는 과총이 우  
 리나라 과학기술인의 총본산으로서 위상  
 을 더 굳건히 재정립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가지 실천방안을 제시  
 하신다면...

### 전국민의 과학화운동 절실

저는 회장재임중 과총의 3대 실천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조화있  
 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로는 학술활동의 구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총은 학회가 주축  
 이 된 연합체인만큼 우선 먼저 학문하  
 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술활동을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하  
 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학술단체들의 학술활동  
 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술  
 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에 대한 지  
 원을 확대 강화시키는 동시에 저명한  
 외국과학자의 초청을 위시한 국제간 학  
 술교류 증진 등 학술관계단체 지원체제  
 의 정비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에는 전국민의 과학화와 과학기  
 술자의 활용을 적극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경  
 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  
 만 이제는 과학기술이 나라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



▲ 최회장(右)은 자주과학기술능력배양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회윤리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박태규 본지편집위원장(左)과 민영기 편집위원(中)에게 강조한다.

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  
 의 개발을 과학자나 기술자가 전담하는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과학을 이해하고  
 기술을 존중하는 풍토로 바뀌어저가는  
 동시에 전국민이 일체가 되어 새로운  
 도약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  
 연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  
 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는 우리들 학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대열의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도시와 농촌의 구별없  
 이 전국 방방곡곡에 침투되어 직접 지  
 역사회 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하게 될 때 비로소 전국민의 과학화가  
 그 실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의 전국적 침  
 투·확산은 농어민의 과학화·기술화에  
 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  
 로 조국의 근대화와 복지사회 건설에  
 직결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개발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의 과학화, 기능화는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농어민의 소득이  
 증대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과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  
 어촌 기술보급이나 지방 중소기업의 기  
 술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역할  
 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특히 정년퇴직한  
 현장기술자나 대학교수의 조직화가 필  
 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전지에서  
 저는 원로과학기술자문단의 활동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원래 과학과 기술은 폐쇄된  
 사회나 고립된 상태에서는 그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대과학  
 은 활발한 국제교류와 상호협력이 강력  
 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어떠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 발전되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필연적인 요소의 하  
 나로써 효율적인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총은 여러 측면에서 교  
 류나 협력을 적극화하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국제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당

연히 과충이 이를 이끌어가는 선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게 된 과총 회장이라는 직책은 아마도 제가 공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 전력투구를 할 각오로 있습니다.

■ 최회장께서는 항상 과학기술인들의 정신자세,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윤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이 점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하는데에는 우선 자구과학기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윤리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창의력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회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면 원하는 발전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없으니까요.

그릇된 풍토 속에서 과학기술이 뿌리 내리게 되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기술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만드는데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작업윤리(作業倫理)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학문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다하면 썩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 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학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건전한 사회윤리와 사회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독일에서는 어

릴 때부터 가정에서 공공 윤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들이 제멋대로 노는 것을 부모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중목욕탕에서 어린이들이 풀장에서처럼 노는 모습, 선생님이 아동을 좀 심하게 다루면 항의하는 학부모, 부모가 자식들의 기를 죽인다고 공공질서를 파괴해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잘못된 자세가 우리 사회의 윤리문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수출도 연간 1천억달러를 초과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이른 일본인들의 소비생활이 소득의 1/3 정도인 1만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은 1만달러의 2배인 2만달러의 소비생활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의 생활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서 사회윤리확립에 그 몫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회장께서는 직업의식, 학문하는 자세 등을 강조하고 특히 지식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학자의 정신적 자세를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관해서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검소·근면·겸손·성실·의욕의 자세로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문한다는 것이 “돈을 보고 하는 거냐, 좋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의 자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제작에 온 정력과 정성, 작가적 근성을 쏟아서 만족스러운 작품이 만들어졌으

면 그것으로 생의 희열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누가 돈으로 비싸게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요. 그래서 학자적인 양식, 사명감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가”를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발견과 학설을 낸 사람의 하나이면서도 “나는 마치 캄캄하고 넓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몇개를 줍고 있는 셈이다”라고 술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젊은 후배들에게 “시계를 쳐다보고 일하지 말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학문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는 검소, 근면, 겸손, 성실, 의욕과 열의의 다섯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확립에 관해서 후배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돈과 시간,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예술작품을 창조하듯이 연구에 몰두해야 합니다. 남보다 10분이라도 덜 자고 애쓰는 노력과 물질적 풍요의 허영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지조, 내 이익보다는 남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요소라고 믿습니다.

■ 평소 과학교육, 대학교육에 관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교육이나 대학교육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

면 무엇보다도 과학교육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의 교육보다 질의 교육 우선

과학교육은 '하는 교육'에서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교육이 정·오답을 가리키는 잘해도 현상을 분석하고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양의 교육보다는 질의 교육을 해야 하며 자격을 따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에 포항공대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유럽지역 대학을 순방한 적이 있는데 이때 언제나 질문한 사항이 있었지요. 당신네 대학에서는 교양윤리교육을 어느 정도나 가르치느냐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공과대학에서 교과과정의 20% 이상을 교양윤리교육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만드는 교육을 우선하는 것이었어요. 교육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발전에 근본이 되는 인간 교육에 커다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1980년 4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뮌헨대학에서 피셔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유기·금속화합물'을 합성한 업적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화학계의 거목입니다. 제가 피셔 교수에게 "지금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반화학'이라고 대답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일반화학은 자연과학계열 1학년 학생이 배워야 할 공통기초과목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당신 전공이 있는데 어째서 일반화학이냐"고 되물었더니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중

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일반화학을 통해서 학문하는 정신부터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대학교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희장께서는 7년반동안 과거 처 장관 시절 국민생활의 과학화운동, 국민의식 개혁을 추진하셨는데 특히 생활의 과학화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식구조의 과학화 시급

생활의 과학화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잠재능력을 고도화하여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가 합리적이고 과학화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막아 실속있고 진취적인 생활이 되고 둘째, 모든 국민들에게 과학적 사고방식이 보급됨으로써 미신, 허례허식, 무사안일한 소극성, 인습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도태시키며 셋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활습성이 합리적인 환경에서 건전하게 발전되는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인지가 자연스럽게 됨으로써 과학잠재력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힘이 집결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의식구조의 과학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계몽 위에서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국민 생활의 과학화운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자나 기술자, 교육자들만이 해야하는 것도 아니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총에서 발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지가 벌써 통권 322호를 기록하였는데 우리나라 최고령의 과학기술종합정보지로서 그 사명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는데 특히 편집위원을 비롯한 출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미국의 「사이언스」지처럼 품위있고 격조가 높으면서 내용이 건실한 월간지로 그 위치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과학잡지로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생활의 과학화에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과학과 기술」지는 과총에서 발간하고 있으나 과총의 기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과학기술인들의 대화의 광장, 과학기술의 발전없이 살 수 없다는 국민적인 이해의 확산, 국민들에게 과학대중화의 가치를 높이 든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에 충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 최희장께서는 작년에 회고록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를 출간하셨고 인세 전액을 한국과학기술회관 건립기금으로 쾌척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최박사께서는 금년 2월10일 KIST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시고 더욱이 최형섭기념동 및 최첨단연구동 기공식에도 참석하셔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총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더 큰 기여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7)